

“선수들 경기력 향상 기대감”

이리여고 펜싱장 준공...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면모 자랑

이리여자고등학교(교장 송내경)는 19일 펜싱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수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 도의원,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전북펜싱협회 관계자, 동창회

장,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축된 펜싱장은 2019년 12월 착공해 총 사업비 약 30억원을 투입, 건축면적 733㎡ 규모로 피스트 8개를 구비한 훈련장, 탈의실, 샤워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또 전자심판기 등을 설치해 체계

적이고 현대화된 펜싱장의 면모를 보였다. 특히 펜싱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및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사용자 중심이 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이리여자고등학교(교장 송내경)는 19일 펜싱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수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 도의원, 조장희 익산시체육회장, 전북펜싱협회 관계자, 동창회장,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19일 전주 구도심 지역 안전을 위해 가족회사인 나라전기관리공사, 제이비이엔지 등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전북대, 전주 구도심 전기안전 개선 재능기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은 19일 전주 구도심 지역 안전을 위해 가족회사인 나라전기관리공사, 제이비이엔지 등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LINC+사업단은 전주 중앙동 3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전선으로 인한 화재 예방 등 생활 필수 설비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취약 세대 선발을 위해 중앙동 발전협의회와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주민센터와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기안전 취약 세대별 맞춤형 개선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LINC+사업단 가족회사인 중앙동 소재 나라전기공사와 제이비이엔지의 재능기부를 통해 용량에 맞는 전선을 가설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됐다.

김해수 중앙동발전협의회장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독거노인 등 전기안전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돼 흐뭇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바탕으로 활발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LINC+사업의 우수 자원을 지역사회로 환류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LINC+사업단은 2017년부터 ‘그린에너지 ICC센터’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도내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완주 수업나눔 오늘 마무리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3일부터 20일까지 배움과 성장의 완주 수업 나눔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올 한해의 배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배움을 나누다! 함께 영글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주 수업 나눔은 선생님들의 다양한 사례를 나누는 사례 나눔과 교육 정책에 관한 특강 공감토크, 포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완주의 교사들은 슬기롭게 학교 생활을 이어간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웹을 활용해 원격수업의 콘텐츠 제작 방법,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놀이 수업을 진행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은성 기자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 모색

전북교육청, 오늘 정책간담회... 인프라 현황 자유 토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일 본청 1층 징검다리 카페에서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3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놀이와 학습 등 일상의 대부분을 디지털 환경에서 지낸 아이들이 올바른 미디어 읽기 능력을 함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학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북 미디어 교육 실태 및 인프라 현황 자유토론으로 구성된다. 초청 강사로는 김은규 교수(우석대 신방과)가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해야할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최성은 센터장(전주시민미디어센터장), 조창숙 대표(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윤은미 주무관(전주시 야호학교)이 미디어 교육 실태 및 인프라 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이

를 주제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정보 읽기의 힘을 키우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북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학생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우수상’

‘태양광 배달통’ 주제 작품 발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제9회 조명·전기설비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주최로 최근 제주 KAL호텔에서 진행된 제9회 대회에서 이 대학 공대여선과 기사단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대여선과 기사단’은 전기공학과 황소현 강아름 이민주와 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전공 양지은 아하는 그리고 기계공학과 전병민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은 ‘태양광 배달통’을 주제로 캡스톤디자인 작품 발표를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양광 배달통은 배달음식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통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온도유지 장치를 탑재해 내용물

의 보온과 냉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배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배달음식의 선도 유지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태양광 배달통의 저렴한 유지비와 뛰어난 성능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팀장인 황소현 학생은 ‘팀원들과 함께 개발한 결과물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작은 아이디어부터 단계를 밟아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여선과 기사단 팀은 LINC+사업단에서 운영하는 45top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외부 경진대회 참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 대회에 참가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